

선취업으로 경력은 UP! 후학습으로 배움은 Plus!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을 신청하세요!

- 학생 신청기간** 2019년 3월 7일(목) ~ 3월 29일(금) 18:00
- 지원사항**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
 -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②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③ 고교 졸업자로서 현재까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④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의무사항** -수혜학기 이수 필요
-수혜학기 내에 중소·중견기업 재직 유지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금액 반환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연락처 : 1599-2290

행복한 교육 2019년 3월 특별기획 - 고교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

행복한 교육



Vol. 440. 2019. 3.



고교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
3·1운동 100주년, 평화시대 여는 통일교육
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출범

Story

MARCH 2019 Vol. 44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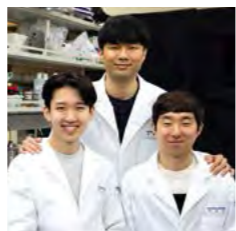
26

COVER STORY

올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원주 치악고 (교장 권혁수)는 2017년부터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희망조사를 토대로 소인수 선택과목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스펙쌓기용 수업이 아닌 각자의 진로·적성에 맞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꿈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이웃학교에서 교육학 수업을 들었다는 한 학생은 이 수업을 통해 교사란 '가르치는 일을 넘어 하나의 인격체를 길러내는 숭고한 일임을 깨닫기도 한다. 치악고 학년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활짝 웃고 있다.



34



7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특별기획

- 02 특별기획_ 고교교육 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
- 04 왜, 지금 고교학점제인가?
- 06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우수사례_경기 고색고·경남 함안고
- 10 시·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사례_강원도교육청
- 12 고교학사제도 혁신을 위한 별동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 16 고교학점제 정착률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
- 19 미래지향적 고교 혁신 프로젝트 '학점제'_ 독일, 캐나다

현장이야기

- 22 꿈이 영그는 현장 경북 울진고등학교
- 26 삶과 교육 김일영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
- 30 우리교실, 프로젝트 경기 꿈의학교 '우동돌'
명예기자가 전하는 전국 방방곡곡 3·1운동
- 36 아하! 진로체험 몸으로 부딪치고 즐기는 경남 수학체험기관
- 38 창업공방 민남기 오펀레트 대표

정책이야기

- 40 정책N전망 3·1운동 100주년, 평화시대 여는 통일교육
- 42 이슈 1 창의융합인재 육성 위한 황금열쇠 '교육기부'
- 46 대학교육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K-MOOC 명품 강좌 듣는다
무크 시대를 맞이한 우리 대학의 변화
- 50 이슈 2 고교교육 보편화 시대,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 높인다
- 52 꽃피는 교육자치 전남 / 세종 / 광주 / 부산 / 충남
- 56 뉴스 브리핑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외

정보이야기

- 58 교육포커스 혁신학교 10년, 그 확산과 지속 가능성
혁신교육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성찰과 전략
- 62 교육 소확행 새 학교 첫 날
- 64 아이의 다락방 잘 어울리지 못하는 영희
- 66 이야기 인문학 시대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소설, 염상섭의 『만세전』
- 68 일상의 침표 겨레의 얼이 깃든 천안
- 72 세계 속 대한민국 베트남, 한류 바람타고 한국어 열풍
- 74 명예기자 리포트 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발대식 개최 외
- 80 행복 게시판

고교교육 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

- 1_ 왜, 지금 고교학점제인가?
- 2_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우수사례_경기 고색고·경남 함안고
- 3_ 시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사례_강원도교육청
- 4_ 고교학사제도 혁신을 위한 별동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 5_ 고교학점제 정착률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
- 6_ 미래지향적 고교 혁신 프로젝트 ‘학점제’ 독일, 캐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합동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꾸려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의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교교육 혁신의 첫걸음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례를 비롯해 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착률을 위한 학생,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본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고색고등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국어 교실을 새롭게 구축했다. 지난 1년간 다채로운 수업을 경험한 2, 3학년 학생들

왜, 지금 고교학점제인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따라 목표도 달라져야
현재 고교 수업도 교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대입전형, 지원자 교육과정 경험과 역량 평가

‘교육은 100년지대계이다.’ 교육이 100년의 큰 계획이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를 예측하고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인구감소’와 ‘IT발전’이다. 인구감소라는 측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IT발전이라는 측면은 사람의 어떤 역량을 증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이다.

필자는 국민학교를 나왔다. 저학년 때는 오전·오후반이 있었고, 한 반의 정원이 60명에서 70명가량 되었다. 중학교 때도 한 반에 60여 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선생님들은 칠판 가득 문제 풀이를 한다거나, 교과서를 읽으며 줄을 긋고 문제집을 푸는 것이 수업이었다. 고등학교 때도 한 반에 60여 명이었다. 대학진학을 위해 예체능을 최소화하고, 일명 ‘뺨뺨이’를 매일 해야 했다.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조금은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하고 싶은 것이 다 제각각이었지만 같은 수업내용을 듣고, 문제집을 풀고 학력고사를 봐야 했다. 내가 받은 초등·중등·고등교육은 그 때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일까?

우리 교육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

아이들이 빠글빠글 많을 때, 수업은 공통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상대평가로 위치짓는 것이다. 공장에서 찍혀 나오듯 일정시간이 흐르면 학교를 나오도

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효율성이고 성과였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교 한 반의 정원이 15명에서 25명 정도이다. 물론 오전·오후반도 없다. 교과서나 백과사전, 문제집이 유일한 정보원일 때와는 다르게 실시간 정보 검색, 동영상, 쌍방향 통신 등이 가능해졌다. 아이들이 현저히 적어진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기술로 교과서 내용을 외우고 익히는 것이 과거만큼 이롭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같은 교과서 지식을 숙지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우위를 결정짓는 것을 유지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같은 학교 3학년 1반 학생의 시간표는 동일하였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나 싫어하는 아이나, 영어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동일한 교재로 동일한 시험지로 상대평가되었다. 이제는 그 성취도가 아이의 진정한 학업적 역량이라고 말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에서 배움이 아이의 흥미나 관심을 대변해 줄 수 없었고,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한 더 중요한 역량이 있거나, 측정할 수 없는 역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성향과 잘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을 개발하려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이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이들마다 서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그로 인해 목표 설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고교교육과 대입전형이

변화해야 할 차례이다.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2018학년도와 확연히 달랐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공동 교육과정, 클러스터, 교육청 지원 계절학기,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특강, 온라인 강좌 등으로 아이들의 교과이력이 다양해졌다. 자기소개서에서도 거꾸로 수업에서 자신이 발휘한 역량이나 자신의 흥미를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를 학문간 연계 수업에서 찾기도 하였다. 이미 고교의 수업이 변화하고 있고,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학은 개인의 특성에 집중한다.

대학입학전형에서 궁금한 지점은 지원자가 어떤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겠다’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선택과목을 중시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집중하려 하였지만, 학교에서의 운영은 여전히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고 그로 인해 과목이 분리되어 있어 ‘선택’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계열을 구분하지 않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2022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전제로,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5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354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고교의 변화를 지원하고자 교육부차관, 교육청 대표로 세종시교육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공동단장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지난 2월 11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장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및 모델 구축,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고교학점제를 위한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확대,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장연수와 소인수 선택과목 직무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학교환경조성사업 추진하여 공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시작이다! 고교 현장에서의 교사 수급과 교실 수, 수업과 평가에 관한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우려를 지체롭게 풀어 나아가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교사, 학생 모두가 지극히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연계하여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품을 수 있는 ‘엄마’와 같은 제도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 아이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⑦



김경숙 입학사정관은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교육부 일반고등학교 발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우수사례_경기 고색고·경남 함안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고색고등학교(교장 정종욱)는 지난 2012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

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정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고색고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학생이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 단계 진화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높은 만족도와 전투기 소음 등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1지망률이 상승한 것은 지난 1년간 성과를 증명한다.

고색고 학생들은 지난해 주문형 강좌와 교육과정클러스터(공동 교육과정)를 통해 고교학점제 ‘맞보기’를 했다. 해당 과목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개설되지 못한 전문·심화 교과를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희망학생 1인당 한 개 강좌를 선택해 들었다. 올해부터는 사탐, 과탐, 제2외국어, 예체능 등 정규 과목들을 선택해 들으면서 본격 고교학점제 시스템을 가동한다.

‘고교학점제’라는 아직은 낯설고도 생소한 운영과정이 단기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정종욱 교장은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이는 △학생의 진로 설계 도움 △학부모의 교육과정 이해

△교육자의 희생·봉사·관심과 협력적 교원 문화를 의미한다.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 통해 진로 탐색 도와

고색고에서는 매주 금요일 4시간씩 진로 캠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꿈을 찾도록 도왔다. 올해는 ‘교육과정 리더’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김승철(교육과정부) 부장교사는 “‘교육과정 리더’는 2학년 반별 5명씩 총 50명의 학생이 멘토가 돼 친구들과 후배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자율 동아리”라고 설명한다. 학부모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녀의 과목 선택에 조언을 건넬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공청회와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색고는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에 100% 찬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 교장은 직접 교사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학생 참여형 수업·시설 지원 늘려

수업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1학년 영어 교실에서는 모둠별로 앉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2학년 화학 수업이 진행 중인 과학실에서는 ‘화학이 실생활에 기여한 사례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 수업이 이뤄졌다.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열리는

비보이 수업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으로 꼽힌다고. 정 교장은 “앞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릴 것”이라며 “내신 성적 평가도 학생 관찰 기록 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내 시설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동 수업을 대비해 영어실을 추가로 개설했고, 사회 교실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과학실, 컴퓨터실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수학실은 전면에 거울을 설치해 비보이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덕분에 강의실 이동 수업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강·최소성취수준 보장 등 해결할 문제점 남아

물론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 운영 결과 성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공강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가 대표적이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있어 공강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표를 잘 조합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이수 문제 역시 논의 중이다. 지난해에는 학력 보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었다. 김승철 부장교사는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획일화된 원칙을 갖기 어렵다.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대신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성취도 등급 최하위 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여전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라고 전했다.



1 정종욱 고색고 교장
2 발표 수업이 이뤄지는 영어 시간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보이 수업
4 모둠별 활동 수업 중인 화학 시간





5 함안고 공동 교육과정으로 진행된 과학 실험
6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멘토링

기에는 2·3학년 동아리 학생이 멘토가 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현장 중심 체험활동을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도 시행했다.

학생·교사의 활발한 진로 역량 강화 활동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는 동안, 이를 지도하는 교사 역시 교내에서 지속적인 교육과정 연수를 받았다. 장소영(교육연구부) 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려면 교사 역시 진로 전문가가 돼야 한다.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시한 학교를 교과별로 방문해 컨설팅을 받았고, 학생들과 1:1 멘토링 활동도 펼치는 등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함안고는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학년별 개설 과목을 선정했다. 올해 2학년 학생들은 1학기에 탐구 7과목(지구과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중 2과목을 선택해 듣고, 2학기에는 미적분, 물리 I, 경제 과목이 추가돼 총 10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한다. 제2외국어는 두 학기 동일하게 중국어와 일본어 중 택1이다.

수강 신청을 통해 올해 본인이 선택한 수업을 듣게 된 학생들의 평은 어떨까. 장예주(2학년) 학생은 “실제로 원하는 수업을 듣게 되니 더욱 흥미가 생기고, 관심사나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과 같은 수업을 들으며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답했다. 이소연(2학년) 학생은 “직접 수강 과목을 선택하니 진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선택 과목 제한·특정 수업 편중 한계

다만 수능 반영 과목으로 인한 △선택 과목의 제한 △성적 문제 △특정 수업 학생 편중이 한계점으로 꼽혔다. 장소영 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수능 반영 과목을 선택해 실제 학기당 선택 과목은

3~4과목 정도였다.”며 “상대평가로 인해 선택 인원이 많은 과목을 들으려 하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피하는 눈치작전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다과목을 수업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수강 학생의 편차가 크게 발생했는데, 농어촌 지역 특성상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학생 수가 많은 수업은 분반이 불가능했다. 반면 6명 정원의 ‘정치와 법’ 과목을 듣는 2학년 팽수정 학생은 “선택 과목의 학생 수가 적은 경

우 내신 성적을 받기 힘들어 절대평가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올해 함안고는 실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수업 내용의 질적 개선에 집중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한다. 학습 공간 리모델링에도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환경이 비슷한 농어촌 일반고에 적합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㉞

INTERVIEW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색고 학생들의 말! 말! 말! 직접 선택한 과목에 흥미 UP, “더욱 다양한 수업 듣고 싶어요!”



고색고 3학년 김영중 학생과 2학년 이윤백·전병철·박제민 학생은 지난해 주문형 강좌를 통해 정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선택해 들었고, 올해 1학기부터는 정규 수업도 직접 수강 신청한 과목으로 듣고 있다. 이들을 만나 고교학점제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김영중 학생은 주문형 강좌로 지난해 1학기 때 ‘과제 연구’를, 2학기 때는 ‘세계문제’를 수강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탐구하니 흥미로웠어요” 김 군의 바람은 더욱 다양한 강좌가 개설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는 “1학기 때 경제 관련 과목을 듣고 싶었는데 인원수가 모자라 폐강됐어요”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윤백 학생은 교양과목으로 선택한 ‘실용경제’ 수업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경제 용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학교 때부터 스포츠 캐스터라는 확실한 진로를 세운 이 군은 오히려 진로를 찾지 못한 친구들을 걱정했다. “문·이과조차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진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전병철 학생은 인터뷰를 진행한 4명의 학생 중 유일하게 자연계열로 진로를 설정했다. 지난해 선택한 ‘과학 창의반’ 수업으로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였다. “과학 창의반’ 수업을 더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반을 운영한다면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영학과 진학을 원하는 **박제민** 학생은 올해 사탐 2과목(정치와 법, 세계지리)과 교양과목인 ‘실용경제’를 선택해 듣는다. 인문계열로 진로 설정한 박 군은 지난해 의외로 ‘과학 창의반’ 수업을 들었다. 자연계열로 진로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과학 실험을 하면서 호기심을 느꼈다고 박 군은 예체능으로 진로를 설정한 친구들의 어려움도 대변했다. “지금은 음악·미술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예체능 과목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사례_강원도교육청 단위학교의 제한된 여건 극복,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교원 수급, 학교 시설 등 현실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만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제한된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 모델을 창출하여 ‘행복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를 구축하고 있다. ‘행복고등학교’란 강원도의 모든 고등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기본정신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고교 운영체제를 의미한다.

조인자(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사는 “일반고를 비롯해 특성화고, 특목고 나아가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과목을 운영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원도의 공동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관내 평준화 일반고 전체를 교과중점학교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교과목이 개설된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직접 수업을 듣는 ‘꿈 더하기 공동 교육과정’, 학생의 이동 없이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운영되는 ‘꿈 더하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대학연계 공동 교육과정’이다. 지역 여건 상 제2외국어의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는 대학연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제2외국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주권 8개 고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현재, 원주시에 위치한 대성고(과학정보교과중점학교), 북원여고(사회중점), 상지여고(미술중점), 육민관고(과학정보융합중점), 원주고(과학중점), 원주여고(과학중점), 진광고(보건중점), 치악고(수리과학정보융합중점)는 상호 협력을 통해 꿈 더하기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점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내 학생들을 위한 소인수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2개 이상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 이웃학교에 개방하고 있다.

치악고(교장 권혁수)의 경우, 올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었지만 이미 2017년부터 공동 교육과정과 소인수 선택과목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사진 참조). 2017년 생명과학실험, 인간발달, 아동복지 3과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실험, 연기,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등 9개 과목

[그림] 강원행복교육협의체 구축 체제



을 개설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학생들의 자치문화와 학교 토론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스펙쌓기가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매칭이 되는 과목을 개설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박명현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진로희망조사를 거쳐 진로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공동 교육과정과 소인수 선택교과를 선정하였다.”며 “금요일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이수할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한다. 유태암(3학년) 학생은 “공연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평소 학교에서 듣기 어려운 수업이라 연기가 개설되자마자 신청했다. 주인공의 친구역할을 맡아 간혹 거리는 연기를 했는데, 연기는 정말 딴 세상이었다.”며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펼친 공연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최진우(2학년) 학생은 지난해 원주고에서 교육학 수업을 들었다. 최진우 학생은 “제가 듣고 싶어 신청한 과목이었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특히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다보니, 이 수업이 계기가 되어 원주고, 북원여고 등 학생들과 교육연합동아리도 꾸리게 됐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치악고는 올해 이산수학을 비롯해 창업일반, 전기회로 등의 특색 있는 과목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꿈 더하기 공동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공동 교육과정의 날’로 운영하는 한편, 공동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

으로 추진한다. 또한 임차버스 등 학생들의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공강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진로 자료 검색, 과제 및 수행평가 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칭)행복에듀카페’도 구축할 계획이다.

17개 지원청을 ‘교육과정 혁신 지원센터’로

한편,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은 필수 조건.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행복교육협의체 구축을 통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고등학교 간 자율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참조).

강원도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 간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살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유·초·중학교를 관할하던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고등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도교육청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였다.

조인자 장학사는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간 협력과 상생,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교학사제도 혁신을 위한 별동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2019 고교학점제 추진 동력이 강화됩니다”

고교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프로젝트 ‘고교학점제’
2019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354개교로 확대
거시적 관점 정책방향 논의할 ‘중앙추진단’ 출범

‘혁신(革新, Innovation)’이라는 단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 상태의 부분적 개선을 넘어 ‘새롭게 교체’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육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격렬하게 혁신의 요구와 도전, 그리고 실패가 거듭되었던 곳이다. 혁신은 종종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패러다임 이론을 주창한 토마스 쿤(Tomas kuhn)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점증적 변화의 누적보다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한 전면적 변화”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과학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과학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공공행정, 특히 교육 분야의 합의 대상은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는 지속적으로 혁신의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거듭된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을 야기하기도 한다. 도전과정에서도 노력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전 자체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혁신을 위한 내부적 동력이 소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고교학점제 중심, 고교체제 전반의 혁신 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혁신지원실(前 학교정책실)’, ‘혁신행정담당관’ 등 조직 내

부서 명칭에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유은혜 부총리의 취임사처럼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 혁신을 이루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혁신을 추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혁신이 어려운 과제를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꼽는다.

이 어려운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고교학점제 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은 고교학점제 제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 설계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제도가 단순히 법·제도 도입으로 완성될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사제도 전반의 종합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마치 과학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처럼 한 순간에 모든 체제와 구성요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TF팀’을 2018년 ‘고교학사제도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제도를 설계하는 임시작업단에서 고교학사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별동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

교 학사제도 및 교원제도 전반의 개선이다. 반면, 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이나 교원정책, 나아가 교원양성기관 정책까지 다뤄야 하는 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힘인 법령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특이하다.

최하영 고교학사제도혁신팀장은 이를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한다.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체제 전반의 혁신을 담당하는 팀은 모든 것이 고교학점제 중심의 소위 ‘혁신거리’일 수 있다.

무분별한 전면적 혁신은 자칫 긍정적 부분의 연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정책 또한 지켜내야 할 부분과 혁신해야 할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권한의 균형은 혁신과 보존 간의 치열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무분별한 혁신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 혁신을 위해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은 권한 있는 정책 부서에 혁신 안건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이른바 ‘내부적 외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자의 역할을 조직 내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녀야 할 성격은 ‘객관성’이다. 조직 내부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출범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기 위해 먼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개선점과 보완점을 연구하기 위함이라면, 선도학교는 지역별로 고교학점제와 연관된 다양한 교육모형을 발굴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연구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선도학교 간 긴밀한 협력은 향후 고교학점제 제도를 완성해 가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2018년 최초 105개교였던 연구·선도학교는 2019년 현재에는 354개교로 확대되었다.

올해 2월 출범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 향후 고교학점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의 각종 제도개선을 이루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연구·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도적 틀을 위한 정책연구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기초적인 밑그림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은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다. 짧은 설계 기간으로 나타난 설익은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설계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된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2018년도 연구학교 시범운영부터 2025년 전면시행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밀한 제도 설계의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 프로젝트인 만큼, 도입 이전 연구·선도학교 외에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제도도입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연 700억 규모의 '고교교육력 제고 사업'이 대표적이다.

내외부적 추진 동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올해 2월 교육부 차관을 포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학점제 연구단장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고교학점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각 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중

추진단'이 출범한 것도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다.

이 중앙추진단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교학점제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 향후 고교학점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의 각종 제도개선을 이루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든 변화는 관성을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된다. 관성의 특징은 처음 작은 움직임을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점차 가속도가 붙는다.

2018년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약 70%가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 및 지도를 받는 등 운영에 만족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점차 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성을 깨고 현장을 움직일 때다.

학교에서 코딩교육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많은 우려와 달리 코딩교육은 이른바 코딩열풍과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교육의 변화는 '새로움을 체험'하면서 이어져왔다. 코딩의 여왕이라는 그레이스 호퍼는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라는 말"이라고 한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 고교학사제도혁신팀이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건강한 '내부적 외부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2019, 고교학점제 추진 동력이 강화됩니다!

학생중심 성장교육, 고교학점제가 실현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 교육부
- 시도교육감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가 강화됩니다.

업무 추진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확대

(¹⁸) 1개소 → (¹⁹) 3개소

정책 공감 및 현장 소통을 위한
고교학점제 전문가 지원단 운영

(¹⁸) 업무담당자 협의회 중심 운영 → (¹⁹) 중앙 및 시도 단위 전문가 지원단 200명으로 확대

학생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공감콘서트 개최 확대

(¹⁸) 2회 → (¹⁹) 14회(내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교과 중점 학교 운영 확대

(¹⁸) 163교 → (¹⁹) 226교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및 지역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확산

(¹⁸) 11개 시도 → (¹⁹) 전체시도

학생 학습경로 다양화를 위한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¹⁸) 2학년대상 → (¹⁹) 2,3학년 대상

지역 특성성 및 여건을 고려한 운영모형 개발을 위해
시도 자율특색사업 지원 확대

(¹⁸) 5억원 5개 시도 참여 → (¹⁹) 15억원 10개 시도참여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 및 교원 연수가 강화됩니다.

고교학점제 우수 운영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

(¹⁸) 105교 → (¹⁹) 354교

교원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장교감교사 연수 강화

(¹⁸) 1,300여명 → (¹⁹) 3,300여명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학점제 특성에 맞는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¹⁸) '교과교실제' 지원 → (¹⁹)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 지원

교과교실제 기준재정수요의 전환
교과교실 단위비용 인상

(¹⁸) 1실당 10백만원 → (¹⁹) 1실당 20백만원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

단위학교 수준에서 과목 개설의 다양성 확보
고교 1학년 학사 운영의 중요성 인식
과목 선택과 연계된 학생 중심의 수업 실시

고교학점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대학생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수업 시간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며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휴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현재보다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고교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이다’(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를 통해 우리는 학생선택권 보장, 다양한 과목 개설, 진로교육의 내실화, 학생 참여형 수업,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단위 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입, 교원 및 시설 등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제도나 정책의 선결 과제보다는 학교 교육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과목 개설에 따른 교원 확보는 필요조건

첫째, 단위학교 수준에서 과목 개설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과목 개설의 여부는 교원 및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학생이 원하는 과목에 대한 교원의 확보는 과목 개설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학습장을 활용한 과목의 이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간 교원 인적 교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개별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 수의 증가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복수교사자격을 교원양성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연수를 통해 학생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 학사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교 1학년 학생의 교과 선택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고교 1학년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과목 선택을 설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바, 학교는 고교 1학년이 입학 이후 3년간

데 데 데 중요해지는 고교 1학년

- ▶ 고 학생의 교과 선택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소통 강화
- ▶ 고교 3년간의 학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강화
- ▶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과목선택상담, 학업설계상담, 학업관리상담 등 실시

학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학년에 걸친 진학지도 특히 1학년에서의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학년 단계에서 진로·적성검사 실시, 진로상담, 과목선택상담, 학업설계상담, 학업관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개인별 진로 코칭에 근거한 유의미한 학업계획이 작성될 필요가 있는 바, 교사·학생·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적성·진로·수준 부합한 과목을 재미있게 수업

셋째, 과목 선택과 연계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요구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가르침만 있고 학생의 배움이 없는 현상을 종종 목도하게 된다. 이는 이른바 ‘잠자는 교실’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공약에서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습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학생이 수업에서 잠자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수업이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지 않아서’ 등의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의 적성·진로·수준에 부합하는 과목을 의미있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 경우, 살아있는 교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과 수업은 긍정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그 의미성을 갖게 된다. 과목 선택권 보장만으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는 어렵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수업의 의미는 배가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따른 학생 중심의 수업은 수업에서 학생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단초로 작용한다.

넷째, 학생 평가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단위학교에 안착되기 위해 성취평가, 교사별 과정중심평가의 시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책무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이다. 절대평가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공정성, 변별력 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되살아 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평가 문항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질 관리를 통해 학생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교교육과정-입시 연계, 전공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다섯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과의 연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와의 연계에 대한 주장은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교양교육과 진로교육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때, 진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입시와의 연계 지점은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이수 현황, 대학입시에서 학생 선택과목의 반영이라는 구도 속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신입생 선발에서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대학수학능력' 유무를 주요한 선발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대학수학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의 취지를 지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전공적합성은 대학수학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전공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심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공 관련 과목을 1-2개 이수하였다고 해서 전공적합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여섯째, 학교 문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 문화는 학교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지지하는 정서적 풍토이자 학교 시스템을 작동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을 견인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협력적인 학교(교사) 문화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며, 전문성에 기반 한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교사가 나서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에 있어서 시작도 교사에서 출발하고 그 종착 지점도 교사이다. 학교 구성원이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 간 협력적인 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숙되길 기대하게 된다. 교사가 고교학점제 실행의 주체로 나설 때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가 가까운 미래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이광우 센터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7).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교육 혁신을 시작한다 -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 보도자료 11. 27(월).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과제. 교육정책포럼 통권 29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이광우(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주안점. 미간행원고

미래지향적 고교 혁신 프로젝트 '학점제' - 독일, 캐나다

고교학점제는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혁신 프로젝트'이다. 그야말로 교육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혁신이다. 현재는 학교가 정해놓은 과목을 학생이 선택한다면 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요청한 과목을 학교가 개설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로 한정된다면 학점제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 밖으로 확대될 것이다.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상대평가가 사라지고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이렇듯 교육체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생은 진로와 학업 수준에 맞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학생이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기대도 갖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실현될 것인가?' 또는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학점제의 방향이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①

독일, 최소 2과목 가르치는 교사, 평가도 2인 체제



먼저, 독일의 학점제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인문계고등학교인 Gymnasium Carolinum의 학생들은 전공과목은 주당 5시간, 일반과목은 주당 3시간 공부한다. 학생들은 3가지 과목군(수학, 독일어/생명과학, 화학, 물리/영어, 역사, 예술)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11학년과 12학년 동안 총 7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Berlin Primo-Levi-Gymnasium에서도 11학년과 12학년 교육과정이 언어군(언어, 예술 등), 사회과학군(사회, 지리, 심리 등), 수학·자연과학군(수학, 과학, 정보 등) 등 세 개의 군으로 구성된다. 전공과목인 독일어, 수학, 자연과학, 영어 가운데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년 과정 66주 동안 주당 33시간에서 55시간 수업에 참여한다.

독일, 인문계고 평가 및 졸업요건
전공과목
▶ 2과목 낙제 시 유급
▶ 유급 시 해당과목 재이수 필수
선택과목
▶ 유급 시 다른 과목 대체하여 이수 가능
평가
▶ 교사는 2과목 이상을 가르치며 2명의 교사가 함께 평가
▶ 교장선생님은 평가 감독

1) 이 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김승철, 한선애)와 교육부 연구사(민일홍) 등이 2018년 9월에 해외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함. 김승철과 한선애의 보고서 내용은 한국고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동계 워크숍의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10학년이 과목을 선택할 때 11학년과 12학년의 학생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교사와 학부모가 과목선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면 마지막으로 교사가 검토해준다.

평가 및 졸업요건은 꽤 까다롭다. Gymnasium Carolinum의 경우 전공과목에서 2과목을 낙제하면 유급된다. 유급이 되면 해당 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이 학교의 경우 유급률이 5% 정도이다. 이 비율은 한 반에 1명 정도 되는 비율이다. 선택과목에서 낙제했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Berlin Primo-Levi-Gymnasium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명의 교사가 함께 평가를 실시한다.

교장선생님이 평가를 감독하고, 사전에 교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한다.

교사들은 최소 2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의 주당 수업과목이 2개여야 노동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교사별로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며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정도 근무한다. 교사가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교과는 대부분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모든 전공과목을 개설하지는 못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전공과목이 개설되는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캐나다, 학점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운영



다음으로 캐나다의 학점제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캐나다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학점취득 가능기관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외에 야간 운영 학교, 학점취득 전문학교, 여름방학 운영 학교, 교육청 협력 기관, 토요일 학점취득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과 이외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실습업체 직업 교육 프로그램, 예술·경제 등 특정 전문 직업 분야 연결 프로그램,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가지 코스를 제공한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따라 코스를 선택한다. 중간에 진로가 변경될 경우 타 기관에서 학점을 인증 받거나 온라인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8학년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안내받는다. 10학년까지는 과목 선택권이 거의 없고 필수 학점을 이수한다. 11학년부터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수강한다. Brebeuf College School의 경우 과목 선택 시 학생들은 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과목만 선택한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교사들은 교과협의회에서 의논하여 자신이 맡을 학년과 과목을 선택한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신청한 교과를 가르칠 교사가 없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사를 지원받아 과목을 개설한다.

평가에서는 50% 이상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처리한다. 학생들은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족한 부분만 다시 수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평가 전에 미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미이수 학생은 여름 학기나 다음 학기에 재이수하도록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학점제 운영 방법
 ▶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따른 4가지 코스 운영. 중간 진로변경 시 타 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온라인 학점 취득 가능
 ▶ 8학년 : 오리엔테이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과정 안내
 ▶ 8-10학년 : 필수 과목 수강 (과목 선택권이 없음)
 ▶ 11학년~ :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수강

이수를 한다. 졸업요건은 최소 학점 기준이 30학점이다. 필수 과목이 18학점(1학점 = 110시간 이수), 선택 과목이 12학점으로 구성된다. 학점을 빨리 따면 한 학기 정도 일찍 졸업할 수 있다.

교원은 2개 학교급 이상 지도가 가능하도록 자격증을 따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 전공은 유사 교과를 2개 이상 가르칠 수 있도록 2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교사들은 모두 2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대부분 지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5-6개월 정도의 연수를 통해 인접 교과 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학점제 통해 본 시사점

해외 학점제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수업 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 보면 4년간 최소 3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하다. 즉, 4년간 3,300시간이므로 연간 825시간 수업을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주일 34단위의 수업을 총 34주 이수해야 하므로 연간 수업 시간은 1,156시간으로 많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둘째,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필수 과목의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하거나 수업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에서 보면 졸업 조건인 30학점 중 필수 학점은 18학점이며 나머지 12학점이 선택과목이므로 실제 선택과목의 비중은 4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교과영역의 180단위 이수 조건 중 필수 이수단위가 94단위, 선택이 86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선택과목의 비중은 약 48% 정도로 높은 편이다.

셋째,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에서는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학점제가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평가 내신 산출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넷째, 교사가 수업과 평가 등 고유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나 학생 생활지도 및 담임 업무 등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각종 행정 업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상주하는 다수의 가이던스 교사가 학생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들은 담임업무와 행정업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과수업과 평가에 전념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가 2개 이상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학교급 또는 두 개의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자신의 발령 전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며 이에 따라 교원 수급 문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하나의 자격에 만족하지 않고 인접 교과 및 유사 과목으로의 시야를 확장시키며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교원의 평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은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포용과 복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격차 등의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치열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㉞



이재덕 연구위원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앙컨설팅지원단에서 활동 중이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 규모 추산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_ 경북 울진고교 로터스심포니오케스트라 “너와 내가 만드는 우리 오케스트라”

자율형 공립고인 울진고등학교(교장 장인기)는 본래 예술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교였다. 2012년 교육부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오케스트라단을 꾸렸지만 교사에게는 기피업무였고 학생들의 중도 이탈은 늘기만 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너와 내가 만드는 우리 오케스트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생 자율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본받고자 ‘로터스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예쁜 이름과 로고도 만들었다. 자치회가 생긴 후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조금씩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질문: 어디 근무하세요?

나: 경북 울진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 그러시구나 울산은 그래도 큰 도시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보면 위와 같은 질문과 답을 많이 받는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울산광역시 속 한 구(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이유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대구광역시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인근의 큰 도시인 포항시나 강릉시는 차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는 교통의 오지이며,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이 품어주고 있고, 동쪽으로는 넓은 동해가 펼쳐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소규모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 위치한 자율형 공립고인 울진고등학교(교장 장인기)는 본래 예술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교였다. 대학입시를 위해 늦은 밤과 주말까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였고, 아이들이 예술을 경험할 환경과 여건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아이들

은 성적에 민감하고, ‘너와 우리’ 보다는 ‘나를 위해서만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생활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 다양한 예술교육 중 특히 학생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음악을 통한 감성 및 정서 순화,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배려심, 단결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울진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에 공모하였고, 최종 선정되었다.

‘울진고, 악기지도 도와주실 강사님을 찾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 불편하고 먼 울진까지 악기지도를 도와주실 강사모집이 쉽지 않았다. 당시 학생오케스트라를 이끈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강사모집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고 수소문하여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해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에서 찾았다. 원활한 강사수급을 위해 포항시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포항아트첼버오케스트라와 울진교육지원청의 강사수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강사들이 음악 바우처 사업과 인근학교의 오케스트라 수업을 위해 울진에 출강하는 요일에 맞춰 오케스트라 수업이 진행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강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전부터 저녁까지 울진군에서 모든 음악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면서도 수입이 보장되면서 울진군은 예술 강사들이 수업을 가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초창기 울진고 학생오케스트라를 이끈 윤인한 선생님(현 선주고 교감)은 기존 학생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지출 비율을 차지하는 악기 구입비 및 수선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악기는 개인구매를 원칙으로 정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로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악기사에 협조를 구했고, 매달 1~2만 원만 지불하면 자녀가 악기를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은 재학 중 자신만의 멋진 악기가 생기게 되었다. 개인악기를 사용하게 된 결과 악



1 학생 자율활동에 기반한 오케스트라
2 울진고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하현우 교사
3 KBS 도전 골든벨 오프닝 무대
4 뉴욕 자매학교와의 교류 연주회



기 관리가 잘 되었고, 악기 구입과 유지비용에 사용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연습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울진고 학생오케스트라가 서서히 기반을 다져 감에 따라 눈에 띄는 성과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2015년 여수에서 열린 행복학교박람회의 메인무대에서 연주를 시작으로 2016년 KBS 도전골든벨 오프닝 무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특별연주, 2018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수상 등 아이들은 교내외에서 잊을 수 없는 음악 추억을 차곡 차곡 쌓았다.

오케스트라는 학교의 자랑, 아이들 자존감 높아져

그 동안 아이들도 많이 변했다.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학교의 자랑이라는 인식이 강해 자존감도 높아졌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하듯이 학생오케스트라는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피로감과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학생은 재미있게 시작한 오케스트라가 점점 부담이 되어 중도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2016년



5 경북교육청의 1만 동아리 대축제 부스 운영
6 지역연계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공연
7 로터스심포니오케스트라 파트장들
8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학교의 자랑이다.



6

부터는 '너와 내가 만드는 우리 오케스트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생 자율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수년간 이름도 없이 활동하던 울진고 오케스트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본받고자 만든 '로터스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예쁜 이름과 로고도 생겼다. 대표, 부대표, 악장, 파트장 등 자치회와 보면대 도우미, 악보 도우미, 튜닝 도우미, 홍보 도우미 등 전 단원 1인 1도우미 제도도 생겼다. 자치회가 생긴 후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입 단원을 뽑을 때 아이들이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선배와 후배가 1:1로 매칭 되어 함께 연습하고 오케스트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고민을 나누는 멘토링 제도도 이때부터 운영되었다.

아이들이 연주하고 싶은 곡들을 모아 직접 악보집을 만들어 1년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합주단을 만들어 지역 사회 음악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모든 연습과 교내외 행사는 학생오케스트라의 주인인 학생들의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외국 오케스트라단원과 함께한 마스터클래스와 미국학교와의 합동공연, 동아리 축제체험 부스운영과 버스킹은 모두 자치회의 토론과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제 아이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악보를 지휘에 맞춰 연습하고, 연주를 하고 공연을 가거나 대회를 갈 때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준비하지 않는다.

로터스심포니오케스트라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오케스트라'기 때문이다. 학교 내 학생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동아리로 인식되어 지금은 전 학년에 걸쳐 8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학생오케스트라가 되었다. 지난 3년간 학생오케스트라를 원래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돌려주는데 성공한 것이다.

오케스트라, 삭막해지는 사회문제의 훌륭한 해답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 활동은 자꾸만 개인화되고 삭막해지는 사회문제



의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고,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은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숙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학교오케스트라 운영을 고민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반드시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이들 스스로 즐겁게 운영하는 장을 마련해주어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예술교육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함께 즐기는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인공지능이 주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소중히 지켜 가야할 감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면 좋겠다. ㉔



8



김일영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 “사랑은 대물림입니다”

누군가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이라고 했던가. 교단에 서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다. 김일영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는 자택을 공부방으로 열어 위기 아이들을 돌보고, 24시간 365일 제자 전용 ‘SOS콜’을 10년 넘게 운영 중이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제대로 보기 위한 그의 여정은 고단하지만 충만한 행복을 선사한다.

결국, 사랑이 답이더라.

올해로 39년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의 한 마디가 묵직하다.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그가 깨달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 긴 세월 수없이 많은 고민과 인내를 견디고 얻은 값진 교훈이다.

“사랑은 되물림(되갚음)이 아니라 대물림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은 교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아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며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일이지요.”

김일영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가 걸어온 길은 대물림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65일 제자를 위한 ‘SOS콜’ 운영

“애들아, 언제나 팔팔하다구 하나공쌤께로 콜!”

김 교사의 휴대전화는 일명 ‘SOS콜’로 불린다. 24시간 365일 평생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자들에게 특별 이용권을 준다.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 삶이 조금 더 고단해 진다고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재능, 시간, 공간 등 최소한 1/10은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꼭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 못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때고 연락할 수 있도록 외우기 쉽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학기 초마다 안내하고 있다. 2008년 처음 개통한 이후 올해로 11년째다.

“쉬한 살이 된 첫 제자부터 올해 열세 살인 막내까지 이용합니다(웃음). 위급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하지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 곁에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살 징후를 보이던 아이가 자살을 극복하고, 왕따로 괴로워하던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참 기뻐지죠.”

어느 날엔 새벽 1시에 SOS콜로 문자가 왔다. ‘선생님, 저 사고 쳤어요.’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 된 제자가 용돈이 궁한 나머지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수백만 원의 돈을 탕진하고, 친구에게 빚까지 지자 늦은 밤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다. 우선 아이를 진정시킨 그는 학교에 강의 왔던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 사이버팀장의 도움을 받아 하룻밤 새 사이트에서 아이를 탈퇴시키고, 부모의 협조를 구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아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면, 불법도박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 교사는 힘주어 말한다.

- 1 23년 전 제자들과 함께 교단에 심은 매화나무가 올해도 꽃을 피웠다. 퇴임 전 해강초등학교로 다시 부임한 김 교사는 감회가 새롭다.
- 2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그려 교실 뒤 게시판에 붙인다.
- 3 김 교사는 12년째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올해 담임 반인 6학년 6반 아이들

10년 동안 자택 내 주말공부방을 열다

학교 돌봄만으로 부족한 아이들은 집으로 불러 모았다. 거실 한 칸을 내어 ‘하나공센터’란 문패도 내걸었다. 김 교사의 이름인 ‘일영’을 따 ‘하나공’이라 이름 붙인 일종의 주말 공부방이다. 아이들은 금, 토, 일요일마다 이곳을 드나들며 보충학습을 하고, 김 교사는



제 인생 최고의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어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식과 밥을 준비했다. 처음엔 한두 명인 아이들이 나중에 점차 늘

어 십여 명이 되고, 학원에 가기 어려운 중학교 제자들까지 모여들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렇게 2017년까지 꼬박 1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꿈을 키우며 대학에 진학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겨울스키캠프도 운영 중이다. 매년 8명씩 9인승 자차에 아이

들을 태우고 4박 5일간 스키캠프와 서울 관광을 겸해 겨울문화체험을 다닌다. 이석한 국제자산신탁 상무는 자택으로 아이들을 직접 초대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소중한 인연이다.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며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되던 아이가 있었어요. 수학 16점을 받았는데도, 부모님 누구 하나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어느 날 아이가 묻더군요. ‘선생님,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보고,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 삶이 조금 더 고단해진다고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재능, 시간, 공간 등 최소한 1/10은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꼭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내기 교사들을 위해서는 하나공연구소 문을 열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 책장 뒤 1인 침대 하나를 두고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의 연구와 동아리를 지원했다. 밤새워 함께 교육 생각을 나누던 이들이 이제 어엿한 연구단체로 성장함에 따라 2001년부터 사비를 털어 10여 년간 운영했던 연구소의 문은 더 큰 성장과 함께 자연스레 닫혔다.



“겨자씨 하나 뿌렸을 뿐인데…”라는 그는 10년 전 감히 흉내도 못 낼 일들을 하면서 홀로서기에 성장한 후배 교사들이 뿌듯할 뿐이다.

기피하는 6학년 담임만 12년째

그는 올해 ‘도’ 6학년 담임이다.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힘들어 기피하는 6학년만 12년째 맡고 있다. 오히려 “6학년 담임을 안 줄까 걱정”이라는 그는 아이들이 인생을 설계하는 출발선에 함께 서고 싶다고 했다.

“한때는 최연소 관리자라는 말에 솔깃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승진을 위한 부장점수 만기 7년 중 6개월을 남겨두고 스스로에게 올무를 매기 위해 교무부장 사표(?)를 냈어요. 지금껏 후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터닝포인트 시기에 아이들을 날마다 흔들어 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는 연초마다 문제아(?)들의 담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아이들은 목은 상처를 지니고 온 아이들이 많다. ‘모두가 네 탓이라고!’ 하는 말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 대물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곁에서 돕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의 장점을 찾는 일부터 시작한다. 평소 다중지능이론을 깊이 새기며 모든 아이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아이의 단점조차 강점으로 살피고 있다. 주의력결핍장애(ADHD)를 가진 한 아이는 친구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급식용 배식차가 들어올 때 높은 턱 때문에 여럿이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들고 왔다. 아이 몰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왔고, 아이는 ‘발명 영재’로 불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어머니를 잃고 기죽은 아이가 가창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학예회 무대에 올린 일,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지만 도예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전시회를 열어 준 일 등은 모두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한 덕분이다. 지난 38년간 단 한 번의 결론도 없었다는 건



- 4 김 교사는 학부모와 1:1 상담을 100% 진행한다. 상담 자리를 미리 정갈하게 하고 차를 다려 학부모를 맞는다.
- 5 선배들이 심은 매화나무에 장수풍뎡이둥 거름을 주고 있다. 두런두런 전하는 옛 이야기에 아이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 6 김 교사는 학기 초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주제로 수업을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만의 삶을 이야기 하며, 교실 내 재능기부도 독려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으로 받은 대통령 표창보다, 스승의 날 교육부 장관상 수상보다 더 값진 일이다.

“제 인생 최고의 은사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이학정 선생님은 어려운 제 형편을 남몰래 도와주시고,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지요.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어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사랑 다시 제자에게 대물림

김 교사는 미혼모의 딸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파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껌팔이, 신문팔이, 고무공장 등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를 말없이 지지해 준 이가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다. 팬스레 친구를 데려와 껌을 사주기도 하고, 남은 빵을 이웃과 친구와 나누라며 부끄럽지 않게 챙겨주기도 했다. 지금껏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던 이 일을 이젠 제자들에게 들려주며 더 큰 희망을 품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첫 제자가 올해 선한 살이 됐습니다. 지난 38년간 매년 스승의 날을 함께 보내며 때로는 인생의 멘토로 때로는 친구로 함께해 오고 있지요. 이 아이들과 함께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선생님은 언제나 13세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웃음).”

민남기 오팔레트 대표

나노구조 활용 '무색소 컬러렌즈' 개발 실험실 속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템으로



1

눈동자의 색깔을 바꿔주는 컬러 콘택트렌즈는 특히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미용 아이템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컬러렌즈에서 색소가 묻어나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색소를 사용하지 않아 눈에 안전한 컬러렌즈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예비창업자 민남기(26) 오팔레트 대표를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만났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민남기 씨는 본래 나노구조체로 색을 바꿔 주로 위조지폐 방지에 쓰이는 보안 물질을 만드는 실험을 해왔다. 그러다 해당 원리를 콘택트렌즈에 적용하게 된 것은 좀 더 실생활

에 유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것이 계기였다.

“실험실 안에서만 펼쳐졌던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우연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최한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랩투비즈(Lab to Biz)’의 포스터를 봤는데, 저의 아이디어를 검증받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수상을 하면서 창업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민 대표의 ‘무색소 컬러 콘택트렌즈’는 이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 해외 창업 프로그램인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도 선정됐고,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에서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 1억 원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모교인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에서도 9,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됐으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넘치고 남다른 도전정신을 타고난 사람들인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 의외로 민남기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미래는 불확실했고 대기업 취직도 물론 생각했다고.

창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는 친구의 영향이 있

었다. 민 대표는 “고등학교 동기 중 창업을 해서 이미 22살이 됐을 때 매각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때 ‘저런 길도 있구나’라고 인식했어요. 교수가 되거나 대기업 취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열린 느낌이었죠.”라고 전했다. 실제로 창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선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에 관심이 없는 이들은 관련 소식을 접하기 힘들 정도. 그래서 민 대표는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전! K-스타트업” 시상식에서 좌담회가 펼쳐졌는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말 중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지원금만 늘릴 것이 아니라,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박수도 쳐주고 관련 기사도 더욱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예요.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공감됐어요.”

팀원들과 철저한 소비자 검증 과정 거쳐

물론 구체적인 준비 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조언을 건넨다. 민 대표가 꼽은 창업 필수 요소 두 가지는 바로 △팀원 구축 △소비자 검증 과정이다. 가장 먼저 팀원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는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 동기 김동재, 이진호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는 투자와 기술 개발, 영수증 처리 등 사소한 문제까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팀원이 꼭 필요하며 “창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험실에서만 이뤄지는 탁상공론이 아닌,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문제인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남기 대표는 컬러렌즈의 실구매층인 10~30대 여성과 콘택트렌즈 전문점 30곳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여대 앞을 무작정 찾아가 무색소 컬러 콘택트렌즈를 쓸 의향이 있는지,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덕분에



1 예비창업자 민남기 오팔레트 대표
2 왼쪽부터 민 대표와 KAIST 동기 김동재·이진호 씨
3 민 대표가 개발한 무색소 컬러렌즈

에 실제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라고 그는 회상했다.

현재 민남기 대표는 내달 중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양산화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사명 오팔레트는 보석 오판과 팔레트의 합성어. 나노구조로 오묘한 색이 발현되는 오판의 원리를 이용해 여러 가지 색의 컬러 콘택트렌즈를 만들어내는 팔레트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컬러렌즈를 색소를 쓰지 않는 기술로 대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민 대표가 전하는 조언은 무엇일까. 그는 “모든 스타트업이 성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창업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팀원과 충분한 아이디어 검증 과정만 있다면 과감히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은 참 창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전했다. ⑤

3·1운동 100주년, 평화시대 여는 통일교육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평화의 관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과 보완이 시급하다.

3·1운동, 평화와 시민성의 발견

일제강점기 전 민족적인 거사였던 3·1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뭘까? 단언컨대 3·1운동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효한 메시지는 ‘평화와 시민의식’이다. 먼저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1차 세계대전 종결된 후 세계체제의 질서는 베르사유 체제에서 열린 파리평화회의로 전쟁이 끝난 후 민족자결과 ‘전쟁 없는 영구적인 평화’를 외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전국 중심의 질서로서 패전국에 대하여 가혹하게 보복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평화, 독립, 민족자결을 외쳤던 사회적 움직임이 3·1운동이었다.

두 번째 ‘시민의식’이다. 당시 세계사적 물줄기는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흐름이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위시하여 오스트리아, 터키에서도 공화정이 세워지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이 나타났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 직후 한성, 상하이, 연해주에서 각각 민주공화정부가 세워졌다. 고종의 죽음으로 군주정이 실제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국민 주권,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공화정부가 시대적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평화의식을 확장하는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운다.” 유네스코 현장의 한 문장이다. 분단 폭력을 겪은 사회에 이보다 더 울림이 큰 메시지가 있을까?

전쟁 이후 체제분단 겪은 우리 땅에서는 이념 대결로 인해 가족, 마을, 민족이 나누어지고 민간인 학살, 이산가족, 간첩단 사건 등 분단폭력이 이어졌다. 또한 분단의식은 여전히 사회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어 적대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오랜 냉전과 분단의 적대성을 극복하려면 평화와 번영으로 협력하고, 포용과 화해가 생활에까지 확산되고,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공감과 배려가 내면화되어 가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장해야 한다.¹⁾

평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내면화하자면 평화교육이 필수적이다. 삶의 근간으로서 평화가 발전하려면 평화 부재의 구조가 되는 분단의 극복으로서 통일 노력과 이를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할 이유라고 볼 수 있다.²⁾

평화와 시민성을 키우는 통일교육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선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

남북대결과 위협적 환경에서 전개된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체계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갈등 조정, 협력과 연대, 평화 감수성, 여러 공동체와 공존 능력을 키우는 평화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 평화교육은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타자 이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시민성 함양을 그 주된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평화통일은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가 정착될 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균형 있게 이해하며,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대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시급한 과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평화의 관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 및 보완이 필요하다. 당위론적 통일론, 안보적 관점에 치우친 통일교육을 평화적 관점을 반영한 방향과 내용으

로 재구성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평화의 관점으로 현행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교과서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 통일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주입하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행동 주체로서 학습자가 성장하는 역량 중심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현장 교원 수업역량을 키우는 핵심교원 연수,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자 연수,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평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업,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생 DMZ 현장 체험,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평화 체험, 평화 축제 등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통일교육체험관 등 유관기관들과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와 정책이 만나고, 중앙부처와 지역 단위의 만남이 여러 단위에서 소통과 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공유하고 현장 실천 사례를 나누고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³⁾

1) 한국평화학의 탐구, 서보혁 저, 박영사, 2018

2) 평화 통일교육 추진 전략 연구, 이동기, 송영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창의융합인재 육성 위한 황금열쇠 ‘교육기부’

교과서 밖, 진로 체험의 장 ‘교육기부’
지난해 11,680개 프로그램, 860만여 명 수혜
교육기부 컨설팅단, 지역센터 운영 등 기관 발굴

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엔 연말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풍경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대표했다. 그러나 최근엔 기업, 단체, 개인이 지닌 재능이나 콘텐츠를 필요한 사람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재능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교육기부다.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아프리카 속담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자신의 재능으로 학생 교육에 기여하는 ‘교육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1만2천여 개,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의 개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만2천개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꿈을 정하지 못하고 아예 ‘꿈 찾기’를 포기한 학생도 상당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2월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하였고 의료·이공 계열 직업이 보다 다양해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인터넷방송진행자(유튜버), 중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고등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 희망직업 10위권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다양해지고 궁금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잘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지 못했거나, 목표로 둔 학과나 직업, 해당 산업이 실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분야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자신이 배운 진로교육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직업으로 나타나는지 해당 분야 전문가와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를 통해 진로 체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부 활동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및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꿈에 날개를 달다

컬러 테라피 전문가, 교육기부에 나서다

저는 지구상에 하나뿐인 혁신적 조명기구를 만드는 창업가인데, 대한민국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는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마침 교육기부 컨설팅단을 통해 교육기부와 인연이 닿아 아이들과 함께 프리즘으로 무지개를 만들어보고, 아이들이 빛의 3원색을 통해 색상의 원리를 배우며 신기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빛의 조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바이오리듬을 통해 직접 확인시켜주었죠. 지금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저를 찾는 학교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상림 / ㈜정감 대표)

아이들을 움직인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열정

산만하고 수업자체가 싫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재미없으면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만드는 것도 귀찮아하고 힘들어 했죠. 그런데 대학생 교육기부 선생님들을 만나고부터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스피터맨 가면을 쓰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방법과 거미줄의 신비한 힘을 영화 스피터맨 속의 장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산만했던 아이가 오롯이 수업에만 집중하더군요. 베이킹소다

를 이용한 화산만들기 수업에서는 실제 화산 생성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대학생 선생님의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호기심도 많아졌습니다.

(남숙정 / 서울동일초등학교 교사)

이처럼 교육기부는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여 학생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로·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은 저마다 특화된 주제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스페셜 기술 △인문·사회 △직업·진로 △예술·체육 △안전·의료 △금융·경제 등 많은 주제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부는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완성도 있는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1,680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860만여 명이 교육기부 수혜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기관을 발굴하고 기관 특성에 맞게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컨설팅단’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기부 대학생, 예술인, 생활체육인 등을 발굴하여 학교의 체육·

[그림 1] 교육기부 포털 시스템



예술교육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 '교육기부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하고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검색·매칭·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부포털사이트(www.teachforkorea.go.kr)를 통해 교육기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기부 기관과 수혜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교육기부 선순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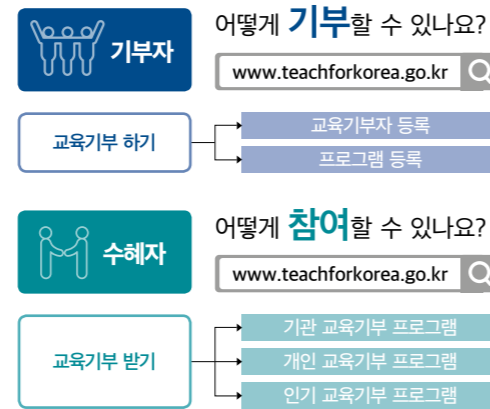
전 사회적 교육기부 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매년 축제 형식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공공기관·대학·개인 등 잠재 교육기부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부 인증제, 교육기부 대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발굴 및 포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출범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동아리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학교와 대학생 동아리를 1대 1로 연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토요 프로그램 '합성소리'와 주중 방과후학교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을, 방학 중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쑥쑥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교육 주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의 구성원을 키우는 교육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회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기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교육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기부자가 되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생태계를 기대해 본다. ㉔

[그림 2] 교육기부 이용 방법



아시아나항공 '아름다운 교실'

고등학생 L군은 승무원이 꿈이다. 하지만 막연한 꿈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뿐 정확히 승무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L군이 사는 산간지역의 학교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교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L군의 학교에 찾아왔다. 여기서 인터넷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L군은 더욱더 꿈에 확신을 갖게 되고, 꿈에 한 발짝 더 가까게 되었다.

한국남동발전 '드림키움 프로젝트'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K씨는 어렵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남동발전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림키움 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교육기부 활성화 활동은 그동안 폐쇄적인 산업으로 인지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드림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 아이들은 영어, 축구, 역사, 과학뿐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꿈 실현을 위한 반석을 다지고 있다.

교육트라다무스가 말해주는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비 부담 ZERO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시작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

대학생 국가 장학금 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183만원 → 205만원 내외

기초 학력 보장 두드림 학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

내 삶을 포용하는 사람중심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확대 ++
2022년 직업계고 전면 실시, 일반고 부분 도입

혁신성장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혁신성장 선도형 등 BK21 사업 개편으로 연간 1만 8천명 양성
2022년 누적 87,500명

과학기술, ICT 분야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AI, 블록제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 신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 확대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성인 10명 중
최소 4명 이상 평생학습에 참여
학점은행제, K-MOOC 강좌 확대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증가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포용적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K-MOOC 명품 강좌 듣는다

2019 K-MOOC, 650강좌(신규 150개) 운영
사회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강좌 대폭 확대
학점은행제 과정 등 학습자 친화적 기능 제공

디지털 혁명으로 정해진 시간에 교실 안에서 한정된 인원에게만 제공되던 수업이 디지털의 힘을 빌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고 있다.

온라인 공개강좌,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등장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교수의 수업을 무료로 접할 수 있다.

2012년 미국에서 MIT와 하버드대학이 설립한 에덱스(edX), 기업들이 연합해 설립한 코세라(Coursera)를 시작으로 무크는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로 친숙한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를 에덱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5년 10월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MOOC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우수 대학의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2018년 말 현재까지 51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K-MOOC는 '최고 대학'의 '명품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습자의 관심을 받아 방문자 수와 수강신청 건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36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수강신청 건수는 78만 건에 달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K-MOOC 모바일 앱을 보급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부터 강좌운영 기간 이외에도 상시수강이 가능하도록 청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 대응한 '2019 K-MOOC'

올해 2019년 K-MOOC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강좌를 대폭 확대 개발하고, 학점은행제 과정 개시 등 학습자 친화적 기능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 다양한 분야의 우수강좌를 신규 150개 강좌, 누적 650개까지 확대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처음 도입한 묶음강좌 개발을 확대한다. 묶음강좌는 개별강좌 4-5개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올해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양성'을 대주제로 10묶음(40강좌)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전문 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의 실질적인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 강좌, 해외 MOOC와의 연계 강좌 등을 확대하여 한층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강좌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K-MOOC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K-MOOC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이 개시된다. 기존 K-MOOC의 이수결과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소속 학생의 대학 학점으로만 인정이 가능하였다. 이에 일반 국민들도 K-MOOC를 수강하고 필요에 따라 학점 및 학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1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은행제란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를 말한다. K-MOOC 학점은행제 과정은 시험부정방지 기능 등 K-MOOC 플랫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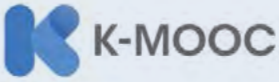
능을 개선하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개강·운영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향후 K-MOOC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선, K-MOOC 플랫폼을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MOOC 자체 신규 플랫폼을

국제적 통용성, 향후 보완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KOCW 등 유사 플랫폼을 통합·연계하여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학습자에게 다양한 강좌 및 고급 기능 제공 등을 위해 부분적·보완적으로 유료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직업교육 강좌 등 분야별 다양하고 우수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 제공, 최적의 강좌 추천 등 학습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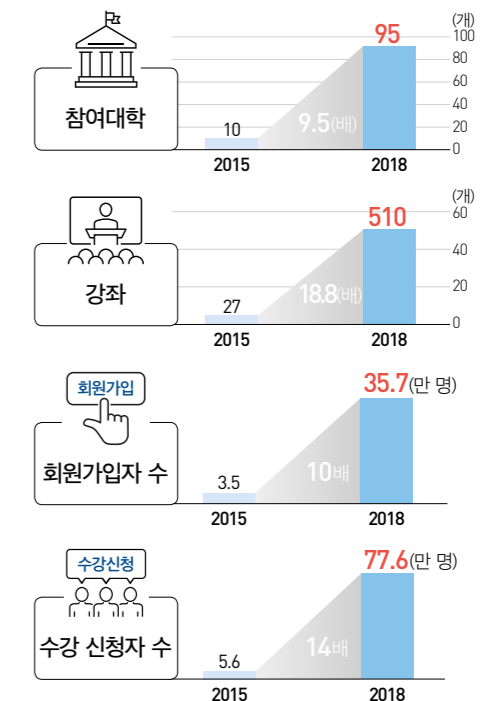


수강 및 활용 안내

이용방법 :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강좌분야 : 예체능, 인문사회, 교양, 의학, 공학 등 650개 강좌
수강기간 : 약 6주~15주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이수증 발급

활성화를 통한 학점 인정 확대

Before	After
대학생은 소속대학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대학생은 소속대학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 일반인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무크 시대를 맞이한 우리 대학의 변화

대학, 고급 콘텐츠 개발로 대외 경쟁력 높여야
온-오프라인, 개인-그룹 결합된 교육 병행
K-MOOC 선도 대학 중심의 빠른 확산 추세

정
책

어느새 사업 2단계 체제에 돌입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_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지난 2015년에 시작하지 불과 4년 만에 36만 명에 가까운 회원가입수와 78만 건에 달하는 수강신청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K-MOOC 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도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3단계, 4단계 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K-MOOC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시도이자 미래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일대 혁신적 사업이 될 수 있다.

큰 기대 속에 출범하였기에 한편으로는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성과 창출에 대한 조급함을 경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인데 멀리 내다보고 다져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며칠 전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출석(오프라인)수업이 있어 다녀왔다. 수업 도중 K-MOOC를 알고 있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모르는 학생이 상당수였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대국민을 향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면 어떨까?

또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교육기관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한데 자칫 수료증·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익사업형 교육의 집중화 현상이

나 각종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K-MOOC의 진정한 수혜자는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교육과정(강좌)들은 교육 목적에 따라 특정 모듈(module)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은 다양한 모듈 중 하나로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전문적인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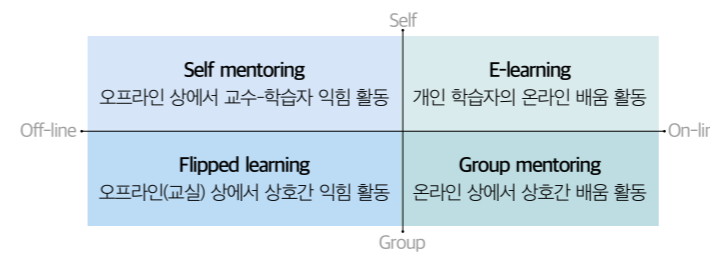
대학, ‘MOOC’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 고민해야

이제 대학은 어떻게 ‘MOOC’라는 마당에서 한층 진화된 교육을 펼칠 것인지 고민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과거 교육이 정답 맞추는 능력 배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다양한 해법을 찾아내는 창의력과 융·복합적 사고를 갖추게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이에 부합하는 학습 방법의 구현과 고급 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이 대학에서 특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고급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은 교수자의 몫이고 이는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학습을 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많은 강좌의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제대로 된 flipped learning(역진행 수업방식)의 실행이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소규

[그림 1] 온라인 학습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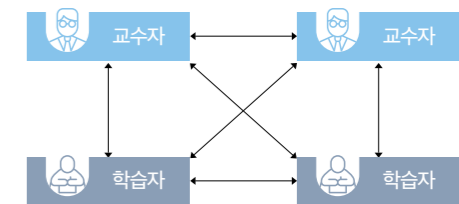


모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 등에서 ‘이러닝(e-learning)’과 ‘flipped learning’을 병행하면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K-MOOC’를 선도하는 대학들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이론학습을 선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론과 발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flipped learning’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수준이지만 점차 그 확산 속도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학습 운영방식도 ‘e-learning’과 ‘flipped learning’의 결합에서 발전한 형태로 ‘온라인-오프라인’, ‘개인-그룹’이 결합된 형태의 4사분면으로 구성되어 더욱 다양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1 참조).

4사분면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e-learning’과 ‘flipped learning’의 활동 외에도 ‘셀프 멘토링’과 ‘그룹 멘토링’ 활동이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가능하며 이러한 세분화된 학습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도는 향상될 수 있

[그림 2]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협력 체계



을 전망이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차원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한 학습에서, 상호 소통을 통한 쌍방향 학습이 등장했다면 앞으로는 교수자와 교수자,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가 모두 소통하는 통합적인 다방향 학습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자들의 협력(cooperation) 강의를 통해 다양성을 무궁무진하게 키울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 학습도 그 경계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 체계는 교육 콘텐츠의 범위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무한하게 해 줄 수 있다.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전 학교 교육은 배우는(學) 것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익혀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flipped learning’이 가세하면서 배우는 것은 ‘e-learning’에서 해결하고, 익히는(習) 것은 ‘flipped learning’ 등으로 해결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K-MOOC’가 우리나라 창의교육의 큰 마당을 펼쳐주는 중심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②

고교교육 보편화 시대,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 높인다

**올 하반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높아
매년 2조 원 예산 확보 관건... 관련 법 국회 발의**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애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2018년 기준 99.7%로 고교교육 보편화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발 빠른 포석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9일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초등교육에 이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으로 발전해 왔다. 1948년 7월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무상교육이 출발했다. 이후 1969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96%까지 향상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어 2004년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으로 결실을 맺었다.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1997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 만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모든 만5세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이듬해 만3, 4세로 확대해 유아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무상복지는 이제 보편화된 고교교육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고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무상복지는 확대되는 반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아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6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꼽는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매년 2조 원 예산 필요... 내국세 교부율 인상 검토 중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2017년 12월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교육부·문체부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10명 중 86.6%가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공립 고교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연간 160만 원, 월별로 13만 원 정도 든다. 입학금 및 수업료(113만 원), 학교운영지원비(27만 원), 교과용 도서 구입비(13만 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4천억 원, 전 학년에 대해 실시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20.27%(2019년부터 20.46%)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4%로 상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 내 합의를 도출하고, 상반기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⑤



지난 2월 19일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사·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표 1] 주요국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현황

자료: 교육부(2013)

구분	의무 기간	고교 재학기간	의무교육 여부	사립고교 학비지원
미국	5~17세	9~12학년	의무교육	유상
영국	5~18세	10~13학년	의무교육	유상
일본	6~15세	10~12학년	무상교육	유상 (공립수준 지원)
독일	6~19세	10~11, 12, 13학년	의무교육	무상
프랑스	5~15세	10~12학년	무상교육	무상
핀란드	7~16세	10~12학년	무상교육	무상

[표 2] 우리나라 무상교육 역사





일가족 3명 함께 졸업장 받다



“나야 배운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되는데, 아들놈이 글이라도 떼면 좋겠다 싶어 같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지라. 나이든 부족한 자식이 지 앞가림이라도 했으면 해서...”

부모와 자식, 일가족 3명이 함께 졸업장을 받았다. 지난 2월 12일 열린 고흥평생교육관(관장 김영안) 제6회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에서 들려온 특별한 소식이다.

주인공은 고흥군 도화면에 살고 있는 강병인(67) 씨와 부인 이희숙(59) 씨, 아들 강부일(33) 씨이다. 이들 가족 동창생은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초등 성인문해교육을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이수해 이날 영예의 졸업장을 받았다.

이들은 고흥평생교육관에서 30여분 떨어진 곳에 살면서 교육관 차량을 이용해 1주일에 3회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초등과정을 수료했다. 부인 이 씨는 언어장애로 일상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아들도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공부했다. 아버지 병인 씨는 7남매 중 맏이로 부모와 형제들 뒷바라지를 하다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다. 이들을 위해 문해교육과정을 알아봤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혼자 평생교육원에 보내는 게 불안했고, 마침 자신과 부인 또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못 배운 한이 있어 함께 문해교육을 수강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배우지 못했고, 애 엄마도 못 배워서 둘 다 까막눈이었제. 학교 땡기면서 말도 조금 배운 것도 있고, 재미진 것도 많았고... 이제 글은 조금 알아. 근데 아직도 한글 받침은 어렵더라고.”

이들 가족은 특히 기억에 남는 교육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꼽았다. 고흥군을 벗어나 순천, 강진, 임실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체험학습에서 평소 경험 못한 가족여행을 하게 돼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의 추억을 만들었다. 담임교사 김정희 씨는 “이들이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3년간 결속 한번 안하고 수업에 참여해 개근상도 받았다. 특히 아버님은 힘든 농사일과 함께 부인·자식을 돌보면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가끔 계란도 삶아 오셔서 수강생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을 위한 ‘특별한 만남’



2019학년도 학부모 12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신뢰씨클(학부모와 교직원의 신뢰쌓기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신뢰씨클’은 세종시교육청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유아들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돕는 학부모 적응활동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의 3월 입학식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루어진 입학식이었다면 이번 ‘학부모 신뢰씨클’은 기존

한빛유치원(원장 김정자, 이하 한빛유)은 2월 20일 한빛유 각 교실에서

의 전형적인 입학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재원생과 신입생 학부모들이 2월 새 학년 준비기간에 만나 서로의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담임교사 발표를 듣고, 앞으로 1년 동안 자녀가 생활할 교실로 이동했다. 교실에 들어선 학부모들은 교사의 진행에 따라 먼저 게임을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어 마음을 열었고, 이어서 모둠별로 나누어 유치원의 비전과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등 가정과 유치원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야 하는 내용들로 이뤄졌다.



조대부고 2학년 학생들, 고려인마을 신조야대표 자서전 집필



윤제, 위승민, 정현빈, 신근섭, 박정의 학생이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의 자서전을 집필해 화제다.

이 학생들은 지난 12월경에 고려인마을의 신조야 대표를 초청해 ‘고려인, 고려인 마을’이란 내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에서 신조야 대표는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살게 된 고려인의 고통과 질곡의 삶 이야기부터 광주 월곡동에 정착하게 된 과정, 고려인 마을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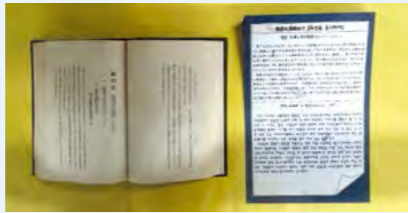
강연회 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고려인청소년문화센터를 위해 조대부고 2학년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해 의류, 서적, 문구류 등 300여 점을 모아 고려인마을센터에 기부했다. 그리고 뜻있는 5명의 학생이 고려인마을의 신조야 대표가 살아온 고난과 희생의 삶에 감명을 받아 ‘나는 고려인 신조야입니다’란 자서전을 쓰게 됐다.

자서전은 특히 한국에서의 삶 이야기는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고려인마을을 시작한 동기, 오늘날 고려인마을로 발전하기까지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가 한 편의 소설처럼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의 집필 동기로 이윤제 학생(2학년)은 “이 책은 신조야 대표 한 분의 개인사이기 전에 낯선 중앙아시아 황무지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와 차별을 겪어야 했던 ‘고려인 동포의 전체의 역사이며,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자서전은 지난 2월 15일 신조야 대표에게 전달됐다.



100년 전 일본인이 기록한 조선과 3·1운동



하는 도서는 3·1운동 관련 10점과 일제강점기 국내사정을 다룬 10점 등 총 20점이다.

1930년 문서인 '朝鮮を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손중호)이 “3·1운동 역사, 광복 전 일서(일본서적)로 만나다”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도서관은 1901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열어 약 110년의 역사를 가진 근대 공공도서관의 효시이자 고문헌 특성화 도서관이다.

한일 외교 관련자료 원본을 비롯하여 고문헌과 일제강점기 일본서적 18,4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시

凝視めて(조선을 응시하여)와 1932년의 '植民統治史(식민 통치사)' 등 10점은 3·1운동을 일본인의 시각에서 기술한 것으로, 3·1운동에 대한 우리 민족과 일본인의 다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자료이다.

손중호 관장은 “시민들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문헌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시회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민도서관 1층에서 열린다.



대한독립 만세! 잊지 않겠습니다



충화초등학교(교장 남궁호) 전교생 10명)은 지난 3월 6일(수) 부여군 충화면 기미3·1독립

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열리는 「충남 최초 독립만세운동 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기미년 3월 6일 충화에서 발원해 임천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열사 7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국난의 위기에 뜨거운 애국심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열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며 나라사랑 정신으로 이어가도록 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현장감 있게 재연한 상황극 공연 관람부터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분향, 기미년 3월 6일 당시 상황설명 및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등의 본 행사에 참여하며, 임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을 하였다.

독립선언서 낭독에 학생 대표로 참여한 6학년 유한울 학생은 “우리 고장 충화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충남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어 뿌듯해요.”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㉔



지금까지 이런 지침서는 없었다!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전 지침서

처음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를 위한 안내서

Q “우리 아이는 길거리 간판 글자가 무슨 뜻인지 자주 물어옵니다. 산만한 느낌이 들어 고민입니다.”

A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배움 욕구를 포착하세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들은 나만의 책과 학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의 욕구를 드러낸 것이지요. 아이의 표현을 잘 듣고 원하는 학습방법을 안내해주세요.

Q “한글을 익히려면 무조건 많이 읽히는 게 좋은가요?”

A 손으로 하는 소근육 활동이 글자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글자 배우기는 충분히 보고 듣는 것을 거쳐 읽고 쓰는 단계를 거칩니다. 한글 쓰기도 본 것이 많아야 하고, 손가락 힘용 능력이 좋아야 익숙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색종이 접기와 가위질, 블록 쌓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어느새 한글도 자연스럽게 써나갈 수 있을 거예요.

Q “아직 한글을 다 못 댔는데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A 충분한 국어 학습은 든든한 외국어 실력의 밑바탕이 되는 법!

아이가 외국어 학습을 소화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어 학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국어 학습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유연한 사고 능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가는 길이 때론 가장 빠른 법이니까요!

Q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도와야 할까요?”

A 우리 아이의 욕구 지연 능력과 감정 해소 능력을 확인하세요.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종이 치면 쉬는 시간의 놀이를 왜 그만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품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분노로 변하면 선생님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등의 엉뚱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불만을 보이는 경우, 이해와 엄마가 적절한 훈육을 해주면 좋습니다. *욕구 지연 능력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질는 능력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의 첫 입학에 응원합니다.

NEWS BRIEFING

2019.03.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이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으며, 제도개선과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 강사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2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강사의 수업시수는 매주 6시간,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각각 매주 9시간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규정했다.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하는 것을 학칙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 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올해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덜어진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에서 올해는 130%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대학생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69만 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574개원)과 사용 희망 유치원(160개원)을 포함해 총 734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관리된다. 사립유치원은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도 관리할 수 있으며, 스쿨뱅킹 등 전자적 수입 관리를 통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사립유치원 734곳 에듀파인 도입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하세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 교육비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는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2

혁신학교 10년, 그 확산과 지속 가능성

혁신교육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작년 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이 단지 내 신설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면서 혁신학교가 세간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혁신학교가 ‘공부 안 시키는’ 학교이고, 특히 고등학교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혁신학교는 진짜 공부하지 않는 학교인가?

혁신학교, 입시 위주 교육의 새로운 대안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실천 경험을 통해 당시 한국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공교육 혁신 모델로 출발했다. 초기에는 주로 학교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2011년부터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암기교육이 아니라 생각을 키우고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창의지성교육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는 (1) 학교장의 획기적 권한위임 (2)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자치공동체 (3)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4) 선진적 창의지성교육이라는 4개의 지표로 더욱 분명하게 재구성되었다. 학교의 권위구조를 바꾸어 민주적 학교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연구하여 아이들에게 차원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인 것이다. 혁신학교는 공부를 안 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공부’를 실천하는 새학교 모델이었다.

혁신학교는 개별학교를 변화시켜, 공교육 내의 학교혁신 모델을 보여주려 하였다.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혁신학교는 출범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 실망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문화의 저변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혁신학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선생님들의 집단지성과 헌신적인 실천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2009년 온갖 난관을 뚫고 경기도의 13개 학교에서 시작해 지난해 1,525개교에 이를 정도로 혁신학교 수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을 개별학교 차원에서 모색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준비된 혁신학교를 개별적으로 선정하다 보니 지역별, 학교급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된 학교혁신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교육철학으로 시작한 혁신교육이 초·중등교육의 최정점인 고등학교에서 실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째, 혁신학교는 현재의 교원인사 규정으로 인해 초빙교사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준비된 혁신교사’들이 모였을 때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의 지속성 문제가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준비된 교사들이 인사 규정을 따라 학교를 이동해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이름만 혁신학교인 학교가 나타날 가능성도 생긴다.

셋째,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 문제가 존재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학교 제1기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약 10%에 해당하는 혁신학교가 지정되어서 학교문화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궁극적 목



문래창작예술촌에서 목공체험하는 서울 영민중학교 학생들

적인 새로운 공부에 대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입시형 공부로 굴절된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넷째, 혁신학교 수를 늘리는 것에만 몰두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위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중간적 범주까지 끼어들면서 혁신학교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 연계통합형 지역교육 모델 필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원래 혁신학교의 문제의식을 살리고 확산할 방안은 무엇인가? 방법은 개별학교 접근이 아니라 지역적 접근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선은 교육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인구 20만 명 규모의 지역을 하나의 교육자치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구 안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혁신교육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내용을 공유하는 교육자치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혁신학교의 철학적 지향이자 내용이기도 한 창의지성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꽃 필 수 있도록 초·중·고 연계통합형 지역교육 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 내 고등학교들은 인문지성·사

회과학·자연과학·문화예술 등 특화와 융합을 통해 학생 선택의 기회를 높여주고, 고교학점제 등의 실천적 조건을 개선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지성, 재능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혁신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의 교육환경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 교육역량과 열의가 있는 교사들이 지역 안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더라도 학교 간의 교육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지역적 혁신학교 접근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협력과 소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구에서의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내용, 교원 등의 소프트웨어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자치구 내 교육 혁신에 필요한 예산과 하드웨어,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교육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분권 자치형 ‘혁신학교군’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혁신교육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개별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한 학교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치밀하게 개선해야만 혁신교육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다. ②

혁신교육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성찰과 전략

장곡중학교가 10년 동안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순차적 혁신 전략’일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매 정권 작고 큰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교육개혁 조치가 학생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업과 학교문화를 바꾸지 못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수업과 학교문화를 바꾸기보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거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교육개혁의 방식도 교육 당국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혁으로 현장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육개혁 70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바뀌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일의 불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입시가 끝나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암기 중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시달려야 한다.

교육 정책의 결정권은 학생과 교사가 아닌 교육 관료와 교육 당국에 있었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학교는 경쟁, 입시, 학벌, 서열 등 부정적 키워드로 가득 채워졌다.

혁신교육 10년,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황폐해진 공교육의 틈을 비집고 지난 2009년 혁신학교가 등장했고 10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 던지는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는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혁신학교가 17개 시·도에서 1,525개교

(전체학교 대비 14%)로 늘어났고 10년 동안 자율과 소통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학교문화, 학생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이 과거의 교육개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변변한 법률 하나 없는 여건에서 혁신교육이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혁신교육의 확산과 지속 가능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혁신학교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장곡중학교의 혁신교육 10년에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자.

△교사의 자발성과 학교자치 문화형성 △상-하향식 변화를 넘어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 △학생의 행복한 삶과 참된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와 순차적 변화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사의 전문성 담보 △경영을 넘어 존중과 지원의 혁신적 리더십 △학교교육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장곡중학교에 드러난 혁신학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교육 본질의 가치를 추구하며,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 배움과 학생 자치를 중심으로 혁신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학교 문화로 정착된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곡중학교가 혁신교육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학생의 미래 모습은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정의를 행하는 민주시민’이다.

자발적 참여와 순차적 혁신이 만든 내부로부터의 혁명

장곡중학교가 10년 동안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순차적 혁신 전략’일 것이다.

배움 중심 수업 혁신,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성장과정 중심 평가혁신, 학생자치의 활성화, 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마을과 공유하는 공간 활용, 사회적 경제 교육과 협동조합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헌신적 노력과 자발적 참여가 만든 학교 내부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초기 수업 혁신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 평가 혁신 → 학생 중심 자치문화 → 학부모 교육과정 참여 →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 학교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순차적 혁신을 10년 동안 진행해 왔다. 만약 수업 혁신,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혁신, 마을교육과정 운영 등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면 혁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좌초되었을지 모른다.

혁신교육 10년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혁신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교육의 지속가능성은 교육부의 깊은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시골의 작은 학교를 혁신하더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토론을 통해 비전과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실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



경기 장곡중학교의 마을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과 협의가 있었는가? 혁신은 내부로부터의 깊은 성찰과 내부로부터의 자기 혁명이 일어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부가 혁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하고 국민과 현장 교사에게 당연한 모습으로 교육혁신 의지와 혁신교육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혁신교육에 대한 적극적 개입전략을 가져야 한다.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는 적극적 개입전략과 소극적 지원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연 교육부는 현장교사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교육자치, 현장 자율이라는 이름의 전략부재와 방치상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0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교육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된 혁신학교 지원센터를 교육부에도 설치하고 지역 교육청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법률 제·개정을 포함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혁신교육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⑤

멀지만 가까운 나라 ‘베트남’ 한류 바람타고 한국어 열풍, 유학으로 이어져



멀지만 가까운 나라 베트남은 한반도의 1.5배 크기에 1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수(9천6백여만 명)를 자랑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배움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이 높은 편이다. 또한 국민 평균 연령이 29세인 매우 젊은 나라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와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만,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의 가장 ‘핫한 나라’로 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류

베트남은 1960년부터 분단된 남북 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전쟁으로 진전되어 15년간 전쟁의 고통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미국 등 우방 국가들과 함께 30여만 명의 전투 병력을 투입하였고,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속된 전쟁

은 1975년 월남의 패전으로 끝이 났고, 우리나라와 1950년에 맺은 수교는 이때부터 단절되었다. 이후 1992년 외교 관계가 다시 수립되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2년 말부터 2000년 초에 걸쳐 드라마와 예능문화로 시작되었다.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와 영화로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삽입곡과 한국가요, K-pop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베트남의 한류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국제대회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베트남인의 한국 기업 선호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과 한국어 교육

베트남의 한류는 ‘한국어 교육’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원장 김태형)에 따르면,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교실’ 수강생은 2016년 660명에서 매년 200명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24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약 1만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호치민시 및 그 인근 지역에만 12개 대학의 4천7백여 명의 학부생들이 한국어학과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등학교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으며 베

한글

트남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도 증가하고 있다.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관할하는 베트남 중남부 지역 토픽 응시자 수가 2016년에 7,161명에서 2018년에는 12,479명으로 늘었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부터는 시험횟수도 연 4회에서 5회로 늘었다.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 한국어 교육 열기는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유학생 수는 27,061명. 2015년 기준으로 약 19%, 6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 유학생의 폭발적인 증가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편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의 박유진 상담원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유학은 베트남 내의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무분별한 알선 기관이 난립하면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한국 법무부에서는 한국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하여 불법 체류 유학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기업, 베트남 국내 총생산량의 35% 차지

한국어 교육은 베트남 산업 현장에서도 큰 관심거리다. 김태형 원장은 “2018년 말 기준으로 6천7백여 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인 약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들 한국기업이 베트남 국내 총생산량의 35% 이상



1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실'
2 3 베트남 한국어능력시험

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한베(한·베)를 타고 있다’고 표현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권으로 사고방식과 정서가 비슷하고,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교육열로 인한 동질성이 많기 때문이다. 모처럼 형성된 두 나라의 관계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관계가 서로의 상생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박희덕명예기자는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범국민단소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에게 단소를 교육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획일적인 학교 건축물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온 만큼 우리의 학교도 모두 똑같은 모습이 아닌 학교마다 특색있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좋았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곧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겪었던 학교의 모습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공간으로 하루 빨리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니터단_곽유나

이런 수업 어때요 수학, 보고 만지고 경험하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수학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수업이 인상 깊었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현장 사진을 보면 온몸으로 도형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표정도 밝고, 즐기는 모습이 정말 좋은 수업 같았다. 교사로서 재밌고 쉬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준비해야겠다.
모니터단_이예지

꿈이 영그는 현장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우수학교사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가 지역의 많은 공동체와 함께 교류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충남 대산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 인근 지역기업을 활용하기까지 학교 교직원의 숨은 노력이 보이며, 학생들 진로탐색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니터단_김보라

EVENT

3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고교학점제란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 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이음석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유희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96
신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발행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최민석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양지선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생애주기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치매 부담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1만 7천명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됩니다.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됩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1,89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가 1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가 4배 늘어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 늘어납니다.

소득

한국형 실업부조로 근로빈곤층 50만 생계가 보장됩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환경·안전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기 시간이 당일로 단축됩니다.

건강

비급여 의료비 2/3 가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주거·지역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됩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이 보장됩니다.

생활기반